

광주 시내버스 10개 업체 서비스·경영평가 첫 공개

준공영제 10년...서비스 1위 대진운수, 경영은 대원운수

결과 토대 성과이윤 배분 불구 서비스 질 향상 등 효과 의문

광주 시내버스 업체 10곳 중 고객 서비스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대진운수, 반대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삼아운수로 조사됐다. 지난 2006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매년 진행된 업체별 서비스·경영 평가 순위가 공개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는 서비스·경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에 성과이윤을 배분, 서비스 질과 경영 내실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지만 액수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하는 수준이어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27일 광주시가 최근 확정된 '2014 광주 시내버스 서비스·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평가 점수(1000점 만점)가 가장 높은 업체는 950.01점을 얻은 대진운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창운수(933.83점), 세영(869.12점), 대원운수(860.09점) 순이다. 삼아운수는 807.0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10개 시내버스 업체 평균 점수는 857.22점이었다.

서비스 평가 순위는 운행관리(300점), 안전성(300점), 고객만족(400점) 등 3개 분야, 9가지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다. 시내버스 업체별로 배차계획 준수율, 행정처분 지수, 차량 안전점검, 교통사고 건수, 운전자 관리(면허취소), 교통법규 위반지수, 운전원 친절도, 교통불편 민원, 시민서비스 평가 등 이용객인 시민의 안전과 만족도를 수치화할 항목을 두루 평가해 점수로 순위를 매긴 것이다.

경영평가 부문 1위는 888.13점을 거둔 대원운수가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대진운수(835.5점), 대창운수(822점), 현대운수(812점) 순이었다. 경영평가 최하위는 세영운수(671.09점)였다. 서비스 평가가 이윤을 위한 수단인 시민들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

■ 광주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결과 (2014년)

순위	업체명	종합점수 (1,000)	운행관리 (300)	안전성 (300)	고객만족 (400)
1	대진	950.01	299.98	270.48	379.56
2	대창	933.83	289.25	275.96	368.89
3	세영	869.12	244.09	255.73	369.30
4	대원	860.09	265.51	222.02	372.56
5	라정	859.93	265.27	232.35	362.32
6	현대	846.75	266.91	237.52	342.33
7	천일	820.12	274.18	190.84	355.09
8	동화	815.86	220.22	251.26	344.37
9	울로	809.52	240.14	188.40	380.97
10	삼아	807.01	243.57	199.65	363.79
	평균	857.22	260.91	232.42	363.89

라면, 경영평가는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시내버스 업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느냐를 가리는 평가다. 경영평가 항목은 적정운전원 유지, 연비관리, 원가관리, 종사원복지, 안전관리, 재무 건전성, 재무개선도 등이다. 광주시는 매년 말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비스·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업체별 성과이윤(서비스평가 2억원, 경영평가 5억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질과 경영 내실화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배분되는 성과이윤 자체가 워낙 소규모인데다 평가 결과를 업체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자구노력을 요하는 것에 그치면서 서비스 질 향상과 경영 내실화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비스·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별 성과 이윤을 주고 그 결과를 통해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서비스 질도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면서 "평가 결과 등을 이용해 시민 만족도 향상은 물론 경영 내실화도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평가 대상 연도인 지난 2014년에는 시내버스 불편신고가 1069건이 접수됐다. 종류별로는 승강장 통과 365건, 승차거부 287건, 불친절 274건, 기타 143건이었다. /김형호기자 khh@



27일 오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85km 해상에서 100t급 중국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1개 사건으로 기소→재판서 2개로 분리→사전선거 벌금 90만원·호별 방문 80만원→병합 안돼 군수직 유지

'법정 행운' 유두석 장성군수 살아났다

유두석(65) 장성군수가 법정에서 유례 없는 행운을 얻었다.

1개의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2개로 나뉘었고, 2개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 90만원과 8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2개의 벌금형이 합산되지 않으면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1개의 기소 사건에 대해 법원이 2개로 나눠 판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법원에 검찰도 모두 당황하는 모양새다.

광주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호별방문 선거운동 혐의로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 군수에 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유 군수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과

부문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벌금 90만원은 확정됐다. 다만, 무죄 판단이 나온 호별방문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호별방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재판부는 2개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항소심 벌금 90만원, 파기환송심 벌금 80만원)했지만, 각각의 벌금형을 합산해 선고하지는 않은 만큼 유 군수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려면 벌금이 1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벌금형을 단순

한 사실상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용부 보성군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기사화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관련해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공보물 제작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대법원 판단이 남는다. 전남경찰청이 이 군수가 자택 증축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으며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보성·장흥·고흥군수 3명의 운명은?...선거법 위반 재판 '관심'

유두석 장성군수가 법정 행운으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 기초단체장들의 선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직위 유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은 이용부 보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박병중 고흥군수 등 3명이다.

앞서 노회용 광주 동구청장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고, 유두석 장성군수는 검찰의 상고 여부가 남았지

'오바마 붓사상' 진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병중 고흥군수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뒀다. 김성 장흥군수는 사전선거운동과 선거 공보물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지켰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받고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1·2심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의 차이가 크게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가거도 해상 中어선 전복 1명 사망·4명 실종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뒤집혀 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사고가 난 중국어선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을 일으켜 다른 중국어선에 의해 중국으로 돌아가길 길이었다.

27일 오전 10시35분경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85km(어업협정선 20km 안쪽) 해상에서 중국 선적 100t급 어선(선명 미상)이전복됐다. 구조요청이 목포해경에 접수됐다. 승선원 10명 중 4명은 사고 직후 이 배를 예인하던 다른 중국어선에 구조됐다. 해경은 헬기 2대, 항공기 2대, 경비함 4척,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서해해양특수구조대를 투입해 선원 1명을 구조하고 숨진 1명의 선원을 물 밖으로 끌어냈다. 나머지 4명의 선원은 실종 상태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운전면허 시험 어려워진다...경사로·T자 코스 부활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 과거 최대 난코스로 불린 '경사로'(언덕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와 'T자 코스'가 부활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른바 '올해 하반기부터 면허 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지는 것은 2011년 6월 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이후 5년여 만이다.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장내

가능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현재는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 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급정지 등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주행거리가 300m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늘어난다. 이 중 T자 코스는 방향전환보다는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도로 폭이 과거보다 훨씬 좁아진다. /박정욱기자 jwpark@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무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